

한국 자발적 비혼자들의 생애발달사에 의한 결혼인식의 재구성*

Reconstructing Marriage Perceptions Based on the Life Histories of Voluntarily Unmarried People in South Korea

1차원고접수: 2023.07.24. 수정원고접수: 2023.08.24. 최종게재결정: 2023.09.15.

이호선¹¹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Lee, Hyo-Seon¹¹Dep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녀의 생애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들이 결정한 자발성의 속성을 밝히고, 결혼인식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 결과,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결정은 권리(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성(autonomy)에서 기인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타인과 외부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정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생애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인정 경험과 의사소통 경험의 부재가 애착의 문제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그들의 결혼인식이 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례에서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및 출산 정책들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책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생애발달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개인의 환경인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문제를 사회·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주요어 자발성, 비혼, 결혼인식, 재구성 연구, 인구·사회학적 위기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fe histories of two men and two women aged 20 to 50 years who voluntarily decided not to marry were collected to reconstruct their ideas about marriage. As a result, the decision of the participants who claimed to have voluntarily decided not to marry was not an autonomous one, but a decision that resulted from the influence of others or the extern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lack of mutual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experiences with parents during their life histories caused attachment problems. Thus, they preferred to remain alone in order not to be hur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ir conceptions of marriage appeared to be “a life that is comfortable for me alone” instead of “two together”. Therefore, this study criticizes South Korea's marriage and birth policies in response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risis as purely economic support measures, and uses the method of biographical research to understand how each individual in society interacts with society and develops throughout the life course. The study also analyzes the demographic and social problems currently facing South Korean society from a sociolog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Keywords voluntary, non-marriage, marriage perception, reconstructive research, demographic and social crisi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자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동시에 사회의 공적인 영역이기

도 하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인구학적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가족은 국가적 기조와 정책의 중요한 집단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별히 한국의 가족 제도와 정책은 6·25 전쟁 이후 근대화된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 가족주의를 통해 사회규범 및 구체적인 정책, 관행 등의 형태로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관에 영향을

* 본 논문은 2021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이호선 (Lee, Hyo-Seon)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Dep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E-mail: hyoseon@kangnam.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주었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관습적·제도적 근간으로 여겨지며 성인기의 의무이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이삼식,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점차 결혼이 공동체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아닌 개인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애사건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¹⁾, 현재 일상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비혼’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비혼(非婚)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뜻하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와 구별되어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한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대 여성주의 진영에서 만들어 낸 용어이다(박수민, 2017).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비혼’이라는 용어는 미혼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큼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에 대한 대중의 동의가 공고해져 가고 있음과 동시에 비혼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혼(결혼하지 않음)은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문제, 그로 인한 사회의 규범적·경제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대응들 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키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²⁾.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결혼을 성인기의 생애과정의 한 단계로 전제(권장)하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삶을 임의적이고 임시적인, 성인기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결핍의 상태로 위치시킨다. 결국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삶에 대한 규범적 위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인으

로서의 ‘자립기’가 갖는 가능성과 의미를 탐색할 기회를 가로막는다(Rosenfeld, 2014). 따라서 비혼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동력은 결혼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각 개인이 그들의 생애과정 속에서 체득해 온 문화적 가치체계와 행위 양식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비혼은 행위 주체인 인간의 의지와 자율성³⁾에 근거한 선택적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제에 처한 존재(Oevermann, 1995: 이효선, 2005에서 재인용)이자 스스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출산장려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근간이 되는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예로 인간이 가족을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법적인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책에 크게 치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만으로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고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단순한 대응책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됐으며, 청년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결혼 회피와 저출산의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불충분한 것과 결혼을 해도 한 자녀만을 출산하려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는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문제를 인간의 본성인 자율성의 속성과 저출산의 대안이 경제·물질적 지원에 치우쳐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사회구조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

1) 통계청(2023)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연속 감속세를 보이며, 2022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 정부의 임신·출산 혜택으로는 만 0세와 만 1세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와 바우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도 출산 및 결혼장려금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누리집, 2023).

3) 본 연구에서 자발성(voluntary)은 이성의 기반 위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규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율성(김우영, 이병승, 2014)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행위의 주체자인 인간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혼자들이 그들의 생애과정을 지나며 만들어오고 추구해 온 가치관, 행위전략과 근대화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에서도 삶의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적 변화의 결합은 분명 새로운 형태의 가족, 결혼과 비혼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의 방식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개인과 여전히 제도적 규범을 요구하는 사회가 어떻게 경합하며 공존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삶의 경험과 그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양 측면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혼과 비혼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독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신자들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파악을 위해 이뤄졌으며(박충선, 2002; 옥귀주, 1999; 이소영, 황선진, 2003), 2000년도 후반부터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혼자의 실태와 비혼을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졌다. 강은영, 진미정과 옥선화(2010)는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 요인을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으며, 호정화(2014)의 20, 30대 비혼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이 혼인 및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본 연구를 비롯하여 김소정(2022), 정연자와 박정윤(2022) 등이 비혼 여성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비혼 결정,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경제적 상태, 직업, 교육수준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사회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적 접근을 제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혼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나레이션을 통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또한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비혼 여성들의 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노미화, 이인수, 2011), 비혼 여성의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20,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를 살펴본 연구(이재경, 김보화, 2015),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탐색한 연구(이성

은, 2015), 비혼 남녀의 결혼과 가족 전반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전희정, 서동희, 전해원, 2021), 비혼 여성 또는 남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을 살펴본 연구(성미애, 2013, 2022)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비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한정시키거나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획일적 기준에 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비혼과 관련된 자발성 관련 요인을 전 생애 경험을 통해 살펴보기 않고 가족과 학력, 물리적 조건 등 특정 시점과 범위 내에서만 다루고 있기에 그들의 자발성의 속성보다는 행위의 결과인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자들에게 결혼이 개인의 생애발달사⁴⁾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비혼과 맞물려 논의되는 사회 문제들이 향후 서로 건강하게 경합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철학자들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F. Schütze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Impromptu Narrative Interview)를 조사 도구로 활용하여 비혼자들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전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하였다. 개인의 생애사는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개인, 즉 화자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자발적 비혼자들을 주체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비혼을 선택하는 개인의 행위 결정을 수량적 측면과 고정된 진술(이론)로만 설명하는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특수성으로부터 개인과 사회가 지닌 구조(규칙)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방법은 자발적 비혼자들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인정 경험과 의사소통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부터 개인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적응하는 사회적 역량을 이해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4) 본 연구에서 생애발달사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도 그들의 생애발달 측면과 관련해 연구자가 중요하게 판단하여 초점화한 것을 의미한다.

을 아우를 수 있다. 이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한 연구 결과는 현 시점에서 자발적 비혼자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결정하는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저출산 및 인구감소라는 한국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2. 한국에서의 결혼인식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여겨졌으며,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해왔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풍습인 데릴사위 제도와 민며느리 제도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조선시대부터는 결혼이 부부가 되는 사람들의 개인적 행복보다 가문 및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의미가 강했고(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이 결혼제도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남성 권력의 재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장필화, 1997). 이 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결혼은 개인이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적령기가 되면 모든 남자와 여자가 치르는 통과례로 인식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징병과 징용, 정신대 징발 등을 피하고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 연령을 낮춘 조혼이 성행했으며(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7), 1920 ~ 1930년대에는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소수의 ‘신여성’들이 자유연애와 결혼, 소가족 등 기존 사회의 도덕적 잣대와 부딪혀 새로운 근대적 담론을 만들기도 했다(정지영, 2006). 일제로부터의 독립에서 6·25전쟁이 끝난 시기에는 해방 후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외세로부터 분단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일한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어, 결혼의 목적은 가정생활을 갖는 것을 비롯해 자손을 많이 낳아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이정희, 2005). 1970년대부터 결혼은 성인이 되는 관문이자 관습, 자녀출산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지배적이었다

(박민자, 2004).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70 ~ 1980년대에는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했으며,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가도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주어진 가정 내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삼식 등, 2016).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결혼은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다는 훨씬 더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띠게 되었으며, 그 속에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이라는 의미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요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박민자, 2004).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자식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례로 인식되어왔다(문소정, 1994: 이삼식,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미혼율의 증가와 만혼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통계청, 2018).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2018)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도가 처음으로 조사되었던 1998년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 ‘하는 것이 좋다’가 39.9%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73.5%로 다수였으나, 20년이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비율이 11.1%로 대폭 줄어들었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동적 입장은 23.8%에서 46.6%로 늘어나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은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역할인 가사와 돌봄이 아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어 여성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재혼율의 증가 등 다양한 삶의 형태의 출현과 가족 형태의 변화는 점점 더 많은 가구와 개인을 기존의 가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인 자율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간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의미를 지닌 ‘자율성’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외

부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성의 기반 위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검증한 규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김우영, 이병승, 2014). Kant는 자율성이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나 환경에 내맡기는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동기 지워지는 법칙 또는 규칙에 따른 행위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이정환, 2016). 즉 결혼에 대한 관습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는 결국 각 개인의 자율성의 확보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를 통해서도 한국 사회에서 비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을 진정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결혼적령기를 지난 ‘노처녀’와 ‘노총각’은 진정한 성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왔으며,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압박이 있었다(이영숙, 박경란, 2003). ‘독신’은 통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결혼적령기를 지났으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통칭하여 일컫는 표현이지만, 자발적이고 자기의지가 강한 독신주의자를 연상시키기에 많은 비혼 남녀들이 자신이 독신자임을 거부하기도 했다(Kim, 2007: 왕석순, 전주람, 류경희, 2015에서 재인용). 또한, 과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미혼’의 뜻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결혼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며,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핵가족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이라는 전통주의적 가족 형태를 강요하는 문화와 연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성은, 2015). 2000년대에 등장한 ‘골드미스(gold miss)’라는 용어는 ‘올드미스(old miss)’ 취급을 받던 30대 여성들이 일에 대한 성취욕과 자아 실현 욕구로 인해 이들의 결혼시기가 늦춰지면서, 탄탄한 직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며, 독신 생활을 즐기는 30 ~ 40대 여성(손이정, 이연영, 이인성, 2007)을 일컫는 것이었지만 이 용어는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만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상한다는 점에

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전은정, 2011; 김순남: 2016에서 재인용). 2000년대부터 등장한 ‘비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미혼’과 구별하여 가치중립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가족관계에 있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박수민, 2017).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남녀 모두 비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부장제의 전통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가 부재했던 여성들에게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으로서의 존재의식인 자아(self)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이효선, 2006). 이에 여성들은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삶의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의사 표현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의 하나로써 비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 또한 이 같은 비혼 증가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비혼을 결정하는 원인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결혼보다 직장과 일을 중시하거나 싱글라이프를 선호하는 데 있으나, 일부 비혼자들은 결혼에 대한 뜻이 있어도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에 부딪히거나(이창순, 2012)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며,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김승권, 2014)로 인해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88만원 세대, MZ세대의 청년층을 일컫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한금운, 2015).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 보여주는 집단이자 점차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성은, 2015).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발

성을 그들의 생애사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자발적 비혼자들이 비혼을 결정하는 삶의 구조와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저출산 위기에 관한 새로운 발견과 담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발성의 속성을 자율성에 의해 살펴볼 때 그 수준과 질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이 자발적 비혼자들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가?
- 연구문제 3.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 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발적 비혼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20 ~ 50대의 비혼을 선택한 남성 2인과 여성 2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발적 비혼자들의 경우 공개적 모집이 어려워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눈덩이식 표집방법(snow sampling)으로 4인의 비혼자를 소개받았으며, 이들로부터 인터뷰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됐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동거여부
A	여	45세	대학원졸	사회복지사	동거(언니, 사촌동생)
B	남	38세	대졸	온라인광고대행사 운영	비동거
C	여	43세	대졸	사서	비동거
D	남	25세	대학교 재학	무직	동거(여자친구)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의 생애가 담긴 자료는 녹음파일을 전사한 녹취록을 통해 기록물로 보관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보호 및 연구윤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며 사례에 관한 인명, 지명 및 개인적 정보는 모두 가명 및 약자로 표기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터뷰 및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셋째, 추후 연구결과 및 분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넷째,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여 감사함을 표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F. Schütze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생애사 연구가 개인의 생애사 회고로부터 시작되어 하나의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발전하기까지 독일의 언어사회학자 Schütze와 그의 제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효선, 2010).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사회과학의 본질이라고 여기며, 생애사 연구를 이야기식 인터뷰라는 조사도구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례분석의 평가도구로 개발하였다(Schütze, 1981, 1984, 1987, 1994). Schütze와 그의 제자들은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가인 G. H. Mead의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

게 일상적인 실재성을 구조화하며 상호작용을 전개하는가(Nittel, 1994)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실험과 논쟁을 통해 생애사 분석방법을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세상에 내놓았다(이효선, 2007). 특별히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는 표준화된 일반 인터뷰와는 달리 연구자의 간섭 없이 화자가 개인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생애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와 속도(pace)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자는 화자에게 그의 삶에 대해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즉흥 이야기(stegreiferzaehlen)란 이야기의 준비 또는 표준화된 질문들을 통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 즉석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야기식 인터뷰에서 연구대상자의 ‘즉흥’ 이야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화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기억과 사건을 우선으로 선택하는지와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자들에게 “저는 비혼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관해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억나는 생애사건 또는 시간 순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 질문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F. Schütze의 이야기 분석방법(narrative analysis)으로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 2단계 구조적 기술, 3단계 분석적 추론, 4단계 재구성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지면의 한계로 1단계인 형식적 본문 분석(사례별 요약)과 4단계인 재구성 단계의 분석과정을 제시하였으며, 2단계 구조적 기술과 3단계 분석적 추론의 경우 기본 원칙만을 설명하였다.

1)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사례별 요약)⁵⁾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은 인터뷰 요약과 문단 나누기 과정으로 나뉜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정독하여 연구참여자가 구성한 생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인터뷰 내용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야기의 의미 단위, 이야기 스타일, 시점의 변화 등에 따라 세세하게 구분하여 나누는 작업이 이뤄진다. 인터뷰 요약 시 연구자는 화자의 생애를 시간별 또는 사건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은 화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뷰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연구자가 이해한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

(1) A사례 요약

A는 1977년 재실(齋室)을 짓는 목수인 아버지와 무속인 집안 출신으로 한약방을 운영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4남매 중 차녀로 출생했으며, 위로 언니와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다. A는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공사현장을 전전하던 아버지와 함께 사찰과 마을에서 생활했으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를 6차례 전학했다. A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친가 친척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부당하게 가로챘던 일이 발생했고, A가족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친척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A는 학창시절 동안 자해 행동을 했으며, 친구들에게 자해한 상처를 보여주며 관심과 위로를 받았다. A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 우등생이었던 그녀는 과학고등학교 입학준비를 준비했으나, 집안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유일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신병(神病)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

5) F.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의 첫 번째 단계인 형식적 본문 분석에는 인터뷰 요약과 문단 나누기의 두 가지 과정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사례별 요약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 그녀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전자회사 총무팀에 취업했으나, 직장 내 학력 제한으로 승진이 되지 않아 전문대학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했다. 이후로도 심리적 불안을 느낀 A는 20대 초반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하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20대 후반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이를 그만두었다. 우연히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A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돌보는 모습에 감명받아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다년간 봉사 활동을 한 후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전향했다. 이후 A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추후 청소년들을 돌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과 박사과정 진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A는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와 사촌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고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A는 어머니가 결혼하라는 압박을 주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돌보면서 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자발적 비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 B사례 요약

B는 1985년 전기 기술직으로 일했던 아버지와 전업 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3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다. B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했던 아버지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다른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 예로 B의 아버지는 B와 동생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면 B만 데려가 공부를 시켰고,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시청할 때에도 B 혼자 방에 들어가 공부할 것을 강요했다. 학창시절 B는 아버지에게 그가 받는 성적에 따라 학급 활동부터 방과 후 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제받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강한 주장을 하는 친구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지내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B는 평소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으나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시

기에는 단기간에 공부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마케팅 회사에 취업한 B는 반복되는 직장생활에 권태감을 느꼈으며, 모처럼의 휴가 기간에 광고주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던 일을 계기로 퇴사를 결심하여 30대 초반에 스스로 마케팅 관련 광고 대행 회사를 창업했다. 점차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해진 B는 일과 삶이 일체화되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 생각하며, 업무 시간 외에도 마케팅 관련 강의와 토론회에 참석하고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에게 업무적·정서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B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으나 결혼은 만료 기간이 없다고 하며, 장기간 함께 지내야 하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특별히 결혼을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부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동맹’과 같은 것이라 비유하면서 부부가 자금을 모아 건물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만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B는 또한 결혼 생활에서 남성이 홀로 가족의 생활자금을 책임져야 하는 전통적인 가장 역할에 불만이 있으며, 유난히 배우자와 자녀에게서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에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들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B는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다소 부러워하며 추후 자신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태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혼을 선택할 때의 단점이라 생각하며 비혼의 삶을 살고 있다.

(3) C사례 요약

1979년 부모님 슬하에서 2녀 중 장녀로 출생한 C는 아버지에 대해 자기 안위만을 위하여 두 집 살림을 했던 사람으로, 어머니에 대해 생활력이 강하지만 자녀에게 무심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C가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님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그녀는 이러한 부모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C는 어린 시절 낯선 사람

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고 사건 현장을 극적으로 탈출했으나 피해자 보호가 미약했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 C가 13세가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하여 C와 동생은 친할머니와 함께 생활했으며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떠났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하여 어머니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C는 학창시절 여러 친구와 어울리기보다 단짝 친구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단짝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간다는 말에 친구와 함께 해당 학교에 진학하였다. C는 학창시절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거나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서른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생각하는 등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고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C는 실제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연기하는 연극에 흥미를 느껴 수년간 극단에서 배우와 스텝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됐던 불안으로 인해 그녀는 잦은 음주와 자살 기도를 했으며, 자신이 정해 놓은 삶의 한계점인 서른이 되기 전인 29세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서른 무렵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으나, 결혼이 아닌 전문대 진학을 선택해 애인과 결별하였다. 생계 문제로 인해 연극 활동을 그만두고 도서 편집·디자인 일을 했던 C는 사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을 공부했다. C는 30대 초반 홀로 대도시로 이사해 배관설계 일을 했으나 잦은 회식과 업무 조율 등 타인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어, 급여는 적지만 비교적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은 도서관 사서로 취업했다. 현재 C는 직장, 결혼, 가족과 같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누군가를 책임지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가벼운 만남과 거리를 두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 C는 결혼에 대해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이해와 수용, 애정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혼을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4) D사례 요약

D는 육가공업 일을 하는 아버지와 껌 원료 공장에서 근무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1998년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맞벌이했던 부모님으로 인해 D는 어머니의 이른 출근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갔으나, 어머니가 D를 두고 출근함에 따라 혼자 교사를 기다리다 출근한 교사와 함께 등원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D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세심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주로 형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D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호기심으로 아버지의 담배를 몰래 피우다 부모님에게 걸려 혼난 일과, 친구가 물건을 훔치던 상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받았던 일을 회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갖고 있다. 중학교 시절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D는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에 다니다 성적이 오르자,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게 됨에 따라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약을 한 달 동안 복용하였다. 당시 D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정서적인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후 부모님이 D의 학업에 대한 기대를 놓게 됨에 따라 그는 뚜렷한 목표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D는 부모님의 권유로 4년제 대학의 식품공학과에 입학했으며, 2년 동안 공부에 흥미 없이 대학을 다니다 군대 복학 후 실험실 활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실험실 활동과 학업에 열중하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D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함에 따라 특정한 이유를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D는 자신이 들인 노력에 비해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과거 학창시절 연애 경험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이후 이성 관계가 깊어질수록 차이가 드러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과 가벼운 만남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D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이성을 만나지 못했기에 비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 결혼할 가능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

2) 2단계: 구조적 기술

2단계 구조적 기술은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화자가 구술한 생애가 중심이 되어 생애발달의 연관성 속에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과 그 밖의 사회화 과정(어린 시절, 학창 시절, 삶을 변화시켰던 사건)을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단계이다. 구조적 기술은 시기별 혹은 사건별 이야기의 형식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애과정에서 구조화될 수 있는 시기 혹은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해 화자의 관점과 이야기하는 방식, 태도 등이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선행지식으로 인한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석적 추론을 미리 하지 않고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경험되고 기억되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구조화한다. 구조적 기술 또한 인터뷰 요약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내용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요구되며, 연구자의 해석이나 이론 및 외부 문헌이 포함되지 않는다.

3) 3단계: 분석적 추론

3단계 분석적 추론은 구조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말한다. 특정 생애 사건들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여러 이론 및 외부 문헌과 연관되어 생애사 전체가 추론되며, 생애사의 모양 혹은 형태(gestalt)가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 이론상의 지식이 해석학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례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 연구자는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사례를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해석에 사용되는 근거로서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분석(해석)되는 본문 범주를 결정해야 하며, 화자의 숨겨진 의미구조를 밝혀

노력한다. 본문 분석이 수행된 후 연구자는 전체 생애 과정을 통해 추론된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에 제시된 경험들의 상호 연관성과 연구자의 추론과의 관련을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석적 추론단계는 연구자의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이효선, 2009).

4) 4단계: 재구성

4단계 재구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로, 각 사례들의 경험적 사실들을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끊임없이 고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이효선, 2009). 즉 사례의 경험적인 기초 위에서 특징적 집단, 가능성의 집합에 대한 예비 개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어 문제의 현상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의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진술들이 획득되고, 유형들이 구조화될 수 있다(이효선, 2005). 재구성은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담론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직 인식되지 않은 것(noch nicht erkannt)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자가 미리 정해 놓은 이론이나 가설에 맞춰 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 현상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해 일반화하는 것으로, 이 일반화는 내적인 법칙성이 있기에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자는 그 감추어진 의미구조(die latente sinnstruktur)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왜 그렇게 행위 했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어떤 규칙이 배후에서 작용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재구성된 사례의 제목은 사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터뷰 상의 문장을 사용하거나 밝혀진 의미를 은유적(metaphor)으로 표현한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그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결과 및 해석

1. A사례 재구성

결혼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신 포도⁶⁾

“나는 그냥 내 가족만 케어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중략) 뭐 나중에 늙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48-51)”

A의 특이한 언어습관은 자신의 생애를 구술하는 데 있어 이미 결정된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들을 현재 높게 평가받거나 바람직한 사회적 기준(인습적 기준)에 의해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아버지는 한옥건축설계사이고 어머니는 한의사라는 전문직으로 이야기하나, 실제 아버지는 재실을 짓는 목수였으며 어머니는 무속인 집안 출신으로 약초를 다루며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A는 학창시절을 이야기할 때에도 연구자가 출신 고등학교의 질적 수준과 본인의 학업 우수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자신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학하지 못한 이유를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요건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죽음과 경제의 문제를 들며 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실제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할 정도로 우수하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A의 심리를 보여준다. 또한 A는 자신의 가족과 클라이언트를 돌보는 일에 대해 케어(care)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좋은 관계라는 돌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딸’과 ‘좋은 사회복지사’로 보이고 싶은 소망에서 기인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A가 이토록 타인

의 평가와 인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 3년 1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났던 A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했으나, 신병이 있어 4자녀 모두 돌볼 여력이 없었던 어머니로 인해 A는 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지냈으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다. 인간이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attachment)은 양육자가 자녀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애착 인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을 갖게 된다(Bowlby, 1969; Ainsworth, 1979: 정선영, 김진영, 2008에서 재인용).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안전기지가 되지 못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던 A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며, 어머니를 포함한 타인에게 의존하며 어머니로부터 영향받은 사회·인습적 기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A가 원 가족의 연합성으로부터 고유한 개인으로서 개별성을 확립하는 자아 분화(Bowen, 1982)를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연합성과 개별성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융합 또는 미분화된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인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만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기보다 타인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된다(Kerr & Bowen, 1988: 아영아, 이명희, 2016에서 재인용). A의 자아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원인에는 어린 시절 A의 어머니가 가진 무속의 속성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았던 불명예와 학창시절 친척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부당하게 가로채 가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무시의 경험 또한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시의 경험은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아 A가 사회 인습의 기준에서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인의 인정 욕구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조화를 지향하는 인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데 분주한 A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작 A 스스로 자기만족

6) 신 포도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슬 우화에서 가져왔으며,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척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됐다.

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는 그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 아니기에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 아무것도 남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 맥락에서 A의 비혼이라는 결정을 살펴보면, 그녀는 자신이 비혼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로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사망한 후 겪었던 친척과의 유산상속 분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A에게 친척들과의 갈등 경험은 사람에 대한 불신감과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A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덧붙여 A는 인터뷰 상에서 직접적으로 결혼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늙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51)’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A가 마음이 맞는 상대방이 있다면 결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을 의식하며 그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의 구조를 가진 A에게 결혼은 ‘누구나 때가 되면 거치는 통과 의례’로 여겨지고 있으나, 어머니에게는 ‘착한 딸’, 형제자매에게는 ‘착한 동생 혹은 언니(누나)’, 직업인으로는 ‘좋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며 타인의 인정을 좇기 분주했던 A는 결혼을 자기의 고유한 과업으로 만들지 못하고 유보함에 따라 사회에서 규정짓는 결혼적령기를 넘기게 되었고, 이러한 A에게 비혼이라는 결정은 타인 지향의 삶의 형태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율성의 의미에서 나온 선택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타인의 인정에 가치를 두는 삶의 구조로 인해 A는 결혼이라는 과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혼은 그녀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못한 구실로 작용하고 있기에 A에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신 포도’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B사례 재구성

결혼은 전략적 요충지

“저는 솔직히 결혼은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81-282)

B의 생애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던 일과 그로 인한 공정(公正)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B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통제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며, 어머니는 B를 보호하거나 대변하지 못하고 남편의 결정에 따를 뿐이었다. B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이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존재감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고 지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적인 생활의 근원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에 부재를 느끼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여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한 역할 수행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권정순, 박인숙, 2002).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와 통제로 인한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B는 어머니에게서도 이러한 감정을 수용받지 못함에 따라 타인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회피적 애착 성향을 형성하였다. 회피적 애착 성향은 부모의 과도한 지배와 엄격성이 원인이 되며, B와 같이 부모가 안전기지(secure base)가 아닌 감시인으로 기능했던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별을 받으면서 욕구와 감정, 의사를 무시당하게 됨에 따라 주체성을 침해받게 된다(Okada, 2015).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던 B는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법적·도덕적 권리의 담지자로 인정하는 형태인 자존감(selbstachtung)과,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자신을 인정하던 부모님으로 인해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 연대성과 관련된 자부심(selbstschätzung)을 발달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Honneth, 1992).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공정한 분배와 평등을 중요시했던 B는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투철한 경제 관념을 갖고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 몰두하며 성취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인 친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보다 명확한 목적하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B의 목표 및 성취 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부모에게 자연스러운 애정이나 공감을 받을 수 없던 그가 전략을 세워 목적을 달성하거나 손익을 고려하는 이성을 발휘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결혼을 동맹이라 생각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가 결혼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맹(alliance)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상호 간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 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동맹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맺는 약속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피상적인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결혼은 ‘나(I)’와 ‘너(You)’가 만나 ‘우리(We)’라는 상호주관의 심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친밀감이 기반이 된 상호 협력관계(문요한, 2018)로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는 이기적이거나 계산적 관계라기보다는 이타적이고 배려적 혹은 희생적 관계이므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익과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조정문, 1995). 그러나 결혼을 동맹이라 생각하는 B는 이를 부부의 공유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친밀한 관계에서도 손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B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수행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감이 B에게 결혼을 갈등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결혼할 배우자가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의 이익에 보탬이 되어 B의 가족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동맹’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B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의 확보(take)가 전제될 때만 타인에게 자신의 몫을 제공(give)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이효선, Garz, 2012). 자신의 이익이 위주가 되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고수하는 B의 태도는 결국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양육방식을 고집하던 그의 아버지의 사고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처럼 B의 경우와 같이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추구하려는 태도는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행위(action) 능력의 상실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공적 영역으로 삶의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인 사적 영역인 일과 노동에 머물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Arendt, 1958). 이러한 맥락에서 B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피형 애착 성향을 지닌 B가 결혼하거나 가족을 형성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하며 남편과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온전한 의미의 자율적 결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B에게 결혼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부부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맺는 전략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임을 발견하였다.

3. C사례 재구성

결혼은 어긋난 사랑의 종착역

“아 무한한 애정을 줄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야지”(200)

C의 생애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에 서 비롯된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부정의 특징이 나

난다. C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게 됨에 따라 C는 은연중에 자신이 부모의 이혼을 늦추고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C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도벽 행동을 했다. 아동기 도벽의 근원적인 원인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몰인정에서 비롯되며(최외선, 장영숙, 김지현, 1998), C의 도벽은 물건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해서가 아닌, 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졌던 그녀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통해 부모를 공격하면서 쾌락을 느끼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훔친 물건이 ‘부모의 사랑, 힘 혹은 권위에 대한 상징’이 된다(Chapman, 1974; 최외선 등, 1998에서 재인용). 이러한 C의 공격적·파괴적 욕구는 또한 그녀가 13세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며칠 동안 수소문해 찾아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를 찾아낸 C의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같은 삶의 본능(eros)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했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어머니의 삶을 파괴하고 무(無)로 돌리려는 죽음의 본능(thanatos)에 가까운 것이다(Lindzey & Aronson, 1977; 이효선, Garz, 2012에서 재인용). 즉 자신에게 무관심한 부모로 인해 갖게 된 파괴의 욕구는 C의 삶에서 아동기 도벽 행위와 어머니를 향한 강한 집착으로, 성인기에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과 자살 시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C는 유일한 애착 대상이었던 어머니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고독감을 느꼈으며, 이와 같은 부모-자녀 간의 누적된 관계 경험은 C의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내면적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그녀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창시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C는 20대 초반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되어 극단의 배우와 스텝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C가 연극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연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자신의 습관적 껍질을 벗는 노력을 하기에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이선형, 2020). 즉 C에게 연극은 배정된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타인이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던 시도였으며, 그녀가 20대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이후 그녀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에 부딪혀 도서 편집·디자인과 배관 설계 업무를 했으나 직장생활에서 협의·조정하는 일과 잦은 회식에 부담감을 느꼈으며,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 도서관 사서로 직업을 전향했다. 이처럼 C가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생존을 위한 그녀의 삶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직업 탐색 과정과 다르게 C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애정과 이해,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를 맺어왔다. 이것은 불안정 애착 중에서 불안형 애착과도 연관되며,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징을 지닌다(아영아, 이명희, 2016). 대인관계에서 거부 받는 것이 두려워 상대방에게 무한한 애정을 요구하는 C의 모습은 마치 인간이 아닌 신(神)의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비대칭적인 관계 양상으로는 C가 오직 주인공만을 바라보는 반려견에게 위안을 받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C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불안과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반겨주는 반려견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며 유기견이었던 반려견을 돌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 간에는 감정적 교류를 나눌 수는 있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할 수 없기에 인간이 동물의 반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한 방향 소통과 같은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은 수신자와 송신자가 기호와 상징으로 이뤄진 언어를 통해 서로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이효선, 2008),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한 방향 소통이 아닌 서로 간의 이해가 요구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반한 양방향 소통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Hazen & Black, 1989: 한아람, 송근호, 2022에서 재인용). 따라서 C는 대인관계의 질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한 방향 소통방식에 익숙하기에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정하는 일이나 지속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상호 평등과 관심이라는 조건 아래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만(Adler, 1978), C는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한한 애정과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함으로써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결혼을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C에게 결혼은 도달할 수 없는 ‘어긋난 사랑의 종착역’임을 이해할 수 있다.

4. D사례 재구성

결혼은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

“지금 혼자 있어도 행복한데 굳이
도박해가면서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나,
찾을 필요가 있나.” (418-419)

D는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삶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자신의 생애 경험과 연결 짓지 않고 드문드문 기억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D의 모습에서 그가 삶의 많은 부분을 습관, 고정관념, 편견 등에 기대어 별생각 없이 처리하며, 깊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지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다(강준만, 2015). 이처럼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D의 특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D는 어린 시절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에게 세심한 관

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주로 형과 함께 지냈으며,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 친구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몰렸던 기억은 현재까지 D에게 해소되지 못한 역울함과 상처로 남아 있다. 이에 D는 성인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형성했다. D와 같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안전기지로 기능하지 못해 안심하고 세상을 탐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탐색 활동을 피하게 되며, 이들의 사회적응 전략은 지속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친밀한 관계를 피함으로써 정서적인 속박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Okada, 2015). 따라서 D의 경우 지속적인 책임이 필요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위를 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인간의 반성적 능력(reflective functioning)과도 연관되는데, 부모와의 초기 애착 관계에서 상처받은 D가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찰적 기능인 정신화 능력(Fonagy, 2002: 나선영, 안명희, 2011에서 재인용)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Arendt는 인간의 조건(1959)에서 인간에게 사유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행위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endt(1963: 조나영, 2016에서 재인용)는 또한 아이히만의 진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무능력함(inability to speak)’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이라 이야기하며, 사유능력의 부재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력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 예로 D는 비혼을 생각 중이지만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는 여자친구에 대한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불만을 표현하지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받았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자유는 누리고 있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해야 하는 의무로서 D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사유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이 아닌 자신에 대한 집착(self interest)으로만 남아 D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 특별히 의사소통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 메시지 전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이효선, 2008), 사유하는 능력이 미약한 D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결국 이러한 사유능력의 미약함은 공적 영역에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며 공론을 만드는 ‘행위(action)’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공동체와 연결된 개인은 이러한 행위(action)를 통해 자의(willkür) 안에서 끝나는 공허한 자유가 아닌 공적인 행위의 자발성(spontanität)을 가질 수 있지만(Arendt, 1993: 박혁, 2009에서 재인용), 공동체를 상정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D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 고립된 영역인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의 비혼 결정은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으로 인해 회피형 애착을 성향을 형성한 그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유하지 않으려 하며, 책임과 의무와 필요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자율성에서 기인한 자발적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에게 결혼은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녀 4인(남성 2명, 여성 2명)의

생애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무속인 집안 출신의 어머니가 가진 낙인에 영향받았던 A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의 구조를 가져 결혼 시기를 놓치게 됨에 따라 비혼이 현재까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기에 A에게 결혼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신 포도’이며, 두 번째, 불공정한 양육 태도를 지닌 아버지와 자녀에게 무관심한 어머니에 의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며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B에게 결혼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부부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우는 전략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이고, 세 번째,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C는 상대방에게 절대적이고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결혼(협력)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음에 따라 C에게 결혼은 ‘어긋난 사랑의 종착역’이며,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거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D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함에 따라 D에게 결혼은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비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생애 경험으로는 4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기에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한 애착의 문제가 존재했고 부모와의 상호인정 경험이 부재했으며, 이러한 손상된 애착과 인정 경험의 결핍은 청년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거부 받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다 결혼 시기를 놓치거나(사례 A),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라(사례 B, C, D) 이들의 비혼 결정이 자율적 의미가 포함된 자발성이 아닌 타인과 사회의 기준에 의한 인습적 결정(사례 A, C), 인습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여 개인적·도구적 목적을 지향하는 결정(사례 D)과 인습과 전 인습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의 결정(사례 B)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자유)라고 인식하고 있어 대인관계를 최소화하여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삶의 양식(lifestyle)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혼이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형태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사회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의식의 미약함에서 파생된 것으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삶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 확보가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 중심의 연역적 연구가 아닌 사례가 중심이 되어 해석하며 이론화를 시도하는 귀추적(abductive) 연구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인식에 대한 사실과 의미를 발견한 후, 이들의 자발성이 자율성의 요건이 되는 공동체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청년들이 홀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한국 사회에 관한 두 측면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에서는 자율성 증진과 관련하여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의 생애발달 과업인 주도성과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위한 방안을 다뤘으며, 청년들이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현상은 결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이나 특징과 무관하지 않기에 한국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사회철학자들의 이론에 의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한 결과, 한국 청년들이 자신과 공동의 삶을 이룰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인 결혼을 포기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타인의 가치기준에 자기를 맞추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홀로 고립되는 삶의 형태를 보이는 것에는 이들의 자율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들의 자율

성이 발휘되지 못한 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자녀 관계에서 손상된 애착으로 인해 자기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 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에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Honneth(1992)는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배려 내지 사랑, 자신의 도덕적·법적 존엄성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업적에 대한 존중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은 부모를 포함한 타인과의 상호인정(gegenseitig anerkennung) 경험이 점차 범위를 넓혀 확대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인정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자신감’, 시민사회에서 권리부여라는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자존감’, 국가 공동체에서 사회적 가치부여(연대)를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자부심(자긍심)’의 세 가지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상호인정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타인과 사회의 존재가 전제된 인정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공동체의식(Gemeinschaftsgefühl)(Adler, 1973: 이효선, Garz, 2012에서 재인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기 긍정을 통한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의 경험이 아니라 부모와 타인, 사회로 범위를 넓히면서 상호인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상호인정을 통한 자율성 증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갖게 된 모든 예비 부모들에게 아동의 생애발달 수준과 과업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부모들에게 부모-자녀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상호인정 경험이 자녀를 독립적이고도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열쇠가 됨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 예로 독일 Köln(콜른)의 Albertus-Magnus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에서는 주 3회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필수과목을 선택하여 보충수업(forderkurse)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지역의 Hildegard-von-Bingen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상급생과 하급생이 협력하여 학업 활동과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 자율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함께 가자(komm mit)’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배움과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주체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자신감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양육자인 부모와 교육기관인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학교가 지지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장(場)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청년들은 역사상 어떤 청년세대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세대이며, 아동기부터 자기주도성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린 세대이기도 하다(이충한, 2019). 이에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진로 진입기와 적응기에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 청년들(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은둔생활로 이어지는 고립 청년들을 사회와 연결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들은 취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 포함되기 어려운 희색지대와 같은 위치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으나, 성인 진입기 관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여러 층위-가족, 친구,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이 박탈된 상태(Zavaleta et al., 2014; 2017: 조미형, 고아라, 2022에서 재인용)라는 점에서 한국 청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돼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한 커뮤니티의 예로 서울시립 청소년 미래진로센터(하자센터)의 경우,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배움의 생태계를 마련하여 ‘스스로 미래에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작업장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회적 기업, 다수의 청년 문화작업자 집단이 상주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센터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현재 그들이 마주하는 취업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타인 및 사회와 연결되는 체험을 통해 긍정적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자율성의 구성요건인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한 결혼인식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준 사회적 측면으로 하버마스와 장경섭의 논의에 의해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개발을 목표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며 빠르게 변화했으며,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물질적 가치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어 개인의 출세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됐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극심한 경쟁 사회가 된 원인에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게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사회와 대중매체는 성공에 대한 이슈를 주로 다루며 경쟁을 부추김에 따라 자녀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태도를 내재화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상호이해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학력과 직업, 결혼과 출산, 노후 등 생애 과업에 대한 의무의식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권리의식보다 강해 생애 과업을 수행하면서 늘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개인의 성취도는 높으나 생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국가에 속한다(김윤태, 2010; 안혜정, 안정민, 서예지, 정태연, 2017; 이연경, 이승중, 2017). 물론 인간에게 일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기 위해 인간을 서열화하여 구분하다 보니,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며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연대감이나 시

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쌓아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철학자 Habermas(1995)의 사회행위이론으로 살펴보면, 그는 모든 사회는 화폐와 권력(경제와 정치)에 의해 조정되고 통합되는 체계(system)와 언어적 이해과정을 통해 행위가 조정되고 규범적으로 통합되는 생활세계(lebenswelt)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기능이 모두 필요하지만, 정치와 경제영역인 체계가 반드시 생활세계의 한 부분으로만 작용해야 연대성이 보장된 이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Habermas(1995)는 한국 사회와 같이 현대화 과정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회에서는 생활세계의 점진적인 발달보다는 경제적·물질적 가치 추구가 삶의 모든 목표로 설정되어 물질만능주의의 사회가 되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현상’을 낳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Habermas의 안목은 삶의 세계(생활세계)의 영역인 결혼과 출산의 문제가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조정·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곧 현대사회의 병폐에서 파생된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이 유럽과 같이 오랫동안 시행과 착오를 거치며 이룩한 것이 아닌,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기에 내실보다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현대화가 빚은 부작용이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학자 장경섭 교수는 가족 구성과 관련된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역량감소’를 가족자유주의(familialliberalism)의 관점에 의해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였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대화 과정이 자신들의 혁신의 지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전통사회가 빠르게 해체되고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가족 개념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곧바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보편적인 제도적 틀로서 결혼, 출산, 양육 등 일련의 사회 재생산 기능이 강조되었기에(장경섭, 1994, 2018), 집합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서 개인의 결정권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장경섭 등, 2015).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범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급격한 생존환경의 변화와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는 기존 가족주의의 사회질서를 흔들었고(Chang, 1997) 젊은 세대의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를 발생하게 하며, 급기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Chang, 2010) 현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철학자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과 같은 사회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환경적 조건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 회피 등은 개인의 실질적·상황적 합리성을 반영한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적 구성물(situational construct)이기에, 향후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 된 가족에 대한 위험부담을 점차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연대감과 책임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 진미정, 옥선화 (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135-144.
<https://doi.org/10.6115/khea.2010.48.2.135>
- 강준만 (2015). 왜 우리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인가? 한정적 합리성 외. *인물과사상*, (209), 37-68.
- 권정순, 박인숙 (2002).父子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부재 경험. *아동간호학회지*, 8(1), 86-96.
- 김소정 (2022). 임금근로 비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53(2), 37-62.
<https://doi.org/10.16999/kasws.2022.53.2.37>
- 김순남 (2016). 이성애 비혼여성으로 살아가기: 지속가능한 비혼, 젠더, 친밀성. *한국여성학*, 32(1), 181-217.
- 김승권 (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246, 1-8.
<https://doi.org/10.23064/2014.06.246>
- 김우영, 이병승 (2014). 인문교양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한 자율성의 개념. *교양교육연구*, 8(4), 207-242.

- 김운태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6(3), 331-355.
<https://doi.org/10.18205/kpa.2011.16.3.005>
- 노미화, 이인수 (2011). 비혼 여성의 가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9(1), 77-101.
<https://doi.org/10.21479/kaft.2011.19.1.77>
- 문요한 (2018). 관계를 읽는 시간. 서울: 더퀘스트.
- 박민자 (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수민 (2017).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29(4), 94-121.
<https://doi.org/10.21478/family.29.4.201712.004>
- 박충선 (2002).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63-171.
- 박혁 (2009). 정치 현상으로서의 자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적 자유' 개념. *사회와 철학*, 18, 417-456.
- 서울시립 청소년 미래진로센터(하자센터) (2008). 하자센터 비전과 가치. <https://haja.net/>에서 2023년 5월 20일 인출
- 성미애 (2013).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2, 171-187.
- 성미애 (2022). 40, 50대 비혼 남성의 생활세계와 결혼 및 가족 담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165-193.
<https://doi.org/10.21321/jfr.27.1.165>
- 손이정, 이언영, 이인성 (2007). 대충 매체를 통해 본 골드미스의 상징성과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7(8), 89-98.
- 아영아, 이명희 (2016).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4(1), 89-106.
<https://doi.org/10.35151/kyci.2016.24.1.005>
- 안혜정, 안정민, 서예지, 정태연 (2017).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1(4), 247-275.
<https://doi.org/10.21193/kjspp.2017.31.4.012>
- 옥귀주 (1999). 미혼 독신자의 생활실태와 만족·불만족 수준.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석순, 전주람, 류경희 (2015).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분석: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7(2), 35-51.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 최효진, 계봉오, 김경근, 김동식, 서문희, 윤자영, 이상협, 이윤석, 천현숙 (2016). *결혼·출산 형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 2016-4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형 (2020). 연극치료와 사이코드라마의 비교 연구: 역할을 중심으로. *연극예술치료연구*, 13, 160-186.
<https://doi.org/10.22684/JDAT.2020.0.13.160>
- 이성은 (2015).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7(2), 73-112.
<https://doi.org/10.22791/ewhagl.2015.7.2.003>
- 이소영, 황선진 (2003). 20, 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6, 267-281.
- 이연경, 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1-39.
- 이영숙, 박경란 (2003). 대학생이 인지하는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경남 및 전북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0), 173-184.
- 이재경, 김보화 (2015). 2,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85.
- 이정환 (2016). 자유란 자기모순적인 개념이다. *철학사상*, 61, 245-279. <https://doi.org/10.15750/chss..61.201608.009>
- 이정희 (2005). 해방공간의 여성지에 나타난 성사랑(로맨스) 결혼의 담론. *역사민속학*, 21, 141-170.
- 이창순 (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과학연구*, 38(3), 49-71.
<https://doi.org/10.15820/khjss.2012.38.3.003>
- 이충한 (2019). 위기에 빠진 것은, '청년'이 아니라 '사회'다. *황해문화*, (103), 44-61.
- 이효선 (2005).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질적연구*. 파주: 학현사.
- 이효선 (2006). 질적 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 73-99.
- 이효선 (2007). 파독 간호사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23, 153-180.
- 이효선 (2008). *노인상담과 연구*. 서울: 신정.
- 이효선 (2009). 한국 여성들의 삶의 이해를 위한 가족 패러다임 재구성: 여성세대 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6(1), 135-181. <https://doi.org/10.18341/wsr.2009.26.1.135>
- 이효선 (201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인간발달연구*, 17(1), 49-84.
- 이효선, Garz, D.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발달과 사회구조*. 파주: 정민사.
- 장경섭 (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철학과현실*, 22, 51-66.
- 장경섭 (2018). 가족자유주의, 위험가족, 인구 위기. *지식의지평*, 24, 40-52.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https://doi.org/10.21478/family.27.3.201509.001>
- 장필화 (1997).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13(2), 41-76.
- 전희정, 서동희, 전해원 (2021). 비혼 남녀의 가족 전반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56, 159-184.

- 정선영, 김진영 (2008). 대학생 애착유형이 대인관계의 갈등 해결 양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1), 1-22. <https://doi.org/10.15753/aje.2008.9.1.001>
- 정연자, 박정운 (2022). 중년 남성의 비혼(非婚)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40-50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221-240. <https://doi.org/10.21321/jfr.27.1.22>
-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研究論叢*, 32, 49-92.
- 정지영 (200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결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4), 47-84.
- 조나영 (2016). 한나 아렌트(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한국여성신학*, 84, 189-196.
-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고립 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https://doi.org/10.20970/kasw.2022.74.4.005>
- 조정문 (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1), 559-584.
- 최외선, 장영숙, 김지현 (1998). 도벽아동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5(2), 209-231.
-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대전: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686에서 2023년 5월 24일 인출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017). 조혼. 1차 개정증보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771>에서 2023년 7월 20일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언론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30.
- 한아람, 송근호 (2022). 반려견의 양육이 의사소통 및 정서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5), 3543-3554.
- 행정안전부 누리집 (2023). 임신·출산 혜택. <https://www.mois.go.kr/fir/a01/firMain.do>에서 2023년 5월 28일 인출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 Adler, A. (1978). *Menschenkenntnis*. Frankfurt: Fischer Taschenbuch Verlag.
- Albertus-Magnus-Gymnasium Köln. (n.d.). Informationen zur Klasse. Retrieved March 12, 2023, from <https://www.amg-koeln.de/gestalten/inklusion>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hang, K. S. (1997).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Economy and Society*, 26(1), 22-40. <https://doi.org/10.1080/030851497000000002>
- Chang, K. S.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https://doi.org/10.1111/j.1468-4446.2010.01325.x>
- Habermas, J. (1995).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MA: MIT Press Cambridge.
- Hildegard-von-Bingen-Gymnasium. (n.d.). Komm mit. Retrieved March 10, 2023, from <https://www.hvb-gymnasium.de/schuelerinnen/beratungs-und-unterstuetzungszusatznetzwerk/komm-mit/582316.de>
- Honneth, A. (1992). *Kampf und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Frankfurt: Suhrkamp.
- Nittel, D. (1994). *Biografische forschung-ihre historische entwicklung und praktische relevanz in der sozialen arbeit*. Lambertus.
- Okada, T. (2015).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김해용 (역). 서울: 동양북스. (원본 발간일, 2013)
- Rosenfeld, M. J. (2014). 자립기. 이계순 (역). 서울: 갈무리. (원본 발간일, 2007)
- Schütze, F. (1981). Prozeßstrukturen des lebensablaufs. In J. Matthes, A. Pfeifberger, & M. Stosberg (Hg.), *Biographie in handlung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pp. 67-156). Verlag der Nüemberger Forschungsvereinigung e.V.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In M. Kohli, & G. Robert (Hg.),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pp. 78-117). Stuttgart: Metzler Verlag.
- Schütze, F. (1987). *Das narrative interview in interaktionsfeldstudien*. Teil I. Hagen: Studienbrief der Fern-Universität.
- Schütze, F. (1994). Ethnographie und sozialwissenschaftliche methoden der feldforschung: eine mögliche methodische orientierung in der ausbildung und praxis der sozialen arbeit? In N. Groddeck, & M. Schumann (Hg.), *Modernisierung sozialer Arbeit durch Methodenentwicklung und -relexion* (pp. 189-297). Freiburg im Breisgau: Lambertus.